

BRAD

JAN 2021 / NO.29

REPORT



브래드 브리핑

미국 대선 이후, 드디어 모사드가 움직였다

엔타임 미니스트리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언약의 확인?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브래드 브리핑 원고를 신앙계에 연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청소년 시절 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달고 살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찢어진 작업복을 입고 교회 지붕을 수리하거나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며 연탄을 나르고 있을 때 여학생이 들이닥치면 창피해서 몸을 숨겨야 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꼭 그런 일을 저하고만 하려고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그 당시 교회의 허드렛일은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피부가 뽀얗고 쌍꺼풀에 코가 오뎅하고 키가 큰 남학생이 나타나 교회의 구석에 앉아 멋있게 기타줄을 뜯고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면 여학생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어 턱을 괴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남학생을 너무나 무부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어머니께 피부도 검고 키가 작게 낳아준 것에 대해 투정하면서 혼자 몰래 기타도 연습해 보고 노래도 불러보았지만 도무지 실력이 늘지 않아 그때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음치로 태어나게 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패배감에 찌들었던 저의 외모는 나이가 들어서도 물론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키가 크는 사람도 있다고 하며 저를 위로했지만 저에게 그런 기적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요즘은 화면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로 카메라 앞에 앉아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의 키가 작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게 하려고 나름 열심히 머리에 스프레이도 뿌리고 얼굴에 화장품도 바릅니다. 게다가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좋게 내고 말의 속도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나름 연구도 합니다. 양복은 단별이기는 하지만 매무새를 잘 정돈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원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은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모에만 치중하고 화면에 잘 나오는 데만 치중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름과 명성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가려지고 내용의 본질은 감춰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브래드TV를 통해 하는 이 일의 중심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브래드TV의 주인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경영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제가 화면에 나오고 제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생긴 저는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제 자신의 개인적 성취감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찢어진 작업복으로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며 교회 난로를 위해 연탄을 나르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시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일을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브래드TV의 시청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저를 포함한 브래드TV의 모든 직원들이 이런 심정으로 일하겠습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김종철 감독

감독

- 6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미국 대선 이후, 드디어 모사드가 움직였다
- 12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쇼핑하면서 메시아닉 단체를 돕는 방법
- 14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언약의 확인?
- 16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브래드 브리핑 원고를 신앙계에 연재합니다
- 18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서안 지구 제조 물품에 '이스라엘산' 라벨 부착 발표
- 20 하나님 편에 선 의로운 이방인
- 24 이스라엘&중동 리포트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테러 공격으로 사망
- 28 유대 역사 속의 1월
- 30 브래드TV 12월 프로그램 리스트





브래드TV에서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이스라엘 전문 월간지! BRAD REPORT를 선물하세요!

브래드 리포트는 브래드TV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에게 매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싶다면 브래드 리포트를 선물해보세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년 구독료 5만원
문의 전화 031-926-2722

※ 해외의 경우, 배송료가 국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리포선 5781 2021

올법은 기록하고
계명도 기록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롬 7:12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토라포선

테벳월

테벳월은 유대력의 넷째 달(닛산월로부터 열째 달)이다. 에스더서에도 언급된 '테벳(테벳)'이라는 이름은 바빌로니아 단어와 히브리 단어 '토브(좋다)'에서 유래했다.

쉐밧월

쉐밧월은 유대력의 다섯째 달(닛산월로부터 열한째 달)이다. 쉐밧월 15일에는 이스라엘의 식목일 '투비 쉬밧'이 있다. 이날은 이스라엘 과일나무에서 수액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날로, 새로운 성장기의 시작이다. 특히 이날에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7가지 소산물(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를 먹으면서 기념한다. 그리고 '인간은 밭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연에서 얻는 교훈을 되새긴다.

1월 테벳 & 쉐밧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테벳 17 신정	2 테벳 18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 창 47:28~50:26 / 왕상 2:1~12 / 히 11:21~22 벨전 1:3~9						
3 테벳 19	4 테벳 20	5 테벳 21	6 테벳 22	7 테벳 23	8 테벳 24	9 테벳 25
쉐모트 (이름들) 출 1:1~6:1 / 사 27:6~28:13; 29:22~23 / 행 7:17~35 고전 14:18~25						
10 테벳 26	11 테벳 27	12 테벳 28	13 테벳 29 월삭	14 쉐밧 1 월삭	15 쉐밧 2	16 쉐밧 3
바에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출 6:2~9:35 / 겔 28:25~29:21 / 롬 9:14~33						
17 쉐밧 4	18 쉐밧 5	19 쉐밧 6	20 쉐밧 7	21 쉐밧 8	22 쉐밧 9	23 쉐밧 10
보 (가라) 출 10:1~13:16 / 렘 46:13~28 / 눅 22:7~30 고전 11:20~34						
24 쉐밧 11	25 쉐밧 12	26 쉐밧 13	27 쉐밧 14	28 쉐밧 15	29 쉐밧 16	30 쉐밧 17
베살라호 (그가 보낼 때) 출 13:17~17:16 / 샬 4:4~5:31 / 요 6:15~71 고전 10:1~5						
31 쉐밧 18						
이트로 (이드로) 출 18:1~20:21 / 사 6:1~7:6; 9:6~7 / 마 8:5~20						

2월 쉐밧 & 아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쉐밧 19	2 쉐밧 20	3 쉐밧 21	4 쉐밧 22	5 쉐밧 23	6 쉐밧 24
이트로 (이드로) 출 18:1~20:21 / 사 6:1~7:6; 9:6~7 / 마 8:5~20						
7 쉐밧 25	8 쉐밧 26	9 쉐밧 27	10 쉐밧 28	11 쉐밧 29	12 쉐밧 30 월삭 셋날	13 아달 1 월삭
미쉬파트 (법규들) 출 21:1~24:18 / 렘 34:8~22; 33:25~26 / 마 5:38~42; 17:1~11						
14 아달 2	15 아달 3	16 아달 4	17 아달 5	18 아달 6	19 아달 7	20 아달 8
테루마 (헌물들) 출 25:1~27:19 / 왕상 5:12~6:13 / 고후 9:1~15 마 5:33~37						
21 아달 9	22 아달 10	23 아달 11	24 아달 12	25 아달 13 부림절 전야	26 아달 14 부림절	27 아달 15
테짜베 (명령해라) 출 27:20~30:10 (신 25:17~19) / 겔 43:10~27 / 히 13:10~17						
28 아달 16						
키티사 (네가 셀 때) 출 30:11~34:35 / 왕상 18:1~39 / 고후 3:1~18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미국 대선 이후, 드디어 모사드가 움직였다

محمد علي حسن الله حسين فاطمه



지난 2020년 11월 27일 오후 2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북동쪽으로 60여 km 떨어져 있는 휴양도시 다마반드 지역으로 가는 도로에 세 대의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운데 차는 방탄유리로 된 차였는데 중년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앞뒤의 차에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다마반드 인근의 원형 교차로에 도착해서 속도를 천천히 줄이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약 1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었던 작은 픽업트럭에서 기관총이 발사되었고 세 대의 승용차 중에 가운데 차에 타고 있던 남자가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길래 총알 세례를 받은 것이며 또 이 남자에게 기관총을 쏟아부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대낮에 벌어졌던 이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의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진상에 대해서 브래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김종철



방송 바로보기

당시의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 대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다다를 때 이미 그 교차로 근처로 또 한 대의 픽업트럭이 다가왔습니다. 트럭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어디론가 사라졌고 픽업트럭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다른 몇 명은 교차로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CCTV 카메라의 전선을 모두 끊어놓았고 주변의 모든 통신 안테나 케이블들을 끊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곳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해도 핸드폰이나 무전기를 이용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게 되었고,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촬영한 그 어떤 증거 화면도 존재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대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도착해서 속도를 줄일 때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픽업트럭의 조수석에 설치된 기관총이 원격 조종에 의해서 세 대의 승용차 중에 정확히 가운데 승용차를 조준했고 놀라서 뛰쳐나온 문제의 그 남자를 정확히 사살했습니다. 이날 처참하게 총에 맞아 사망한 남자는 바로 이란 핵개발의 총책임자로 이란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모센 파크리자데였습니다.



테헤란에서 있었던 모센 파크리자데의 장례식

모센 파크리자데, 그는 누구인가?

파크리자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자면 1999부터 2003년까지 이란이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최고위급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서방 정

보기관들은 그가 민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장해 핵탄두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지난 2013년 이란과 북한의 핵커넥션을 보도하면서 “이란 핵무기 총책임자인 파크리자데를 포함한 이란 핵과학자들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8년 당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테헤란 남서부 슈러브드 지역의 비밀시설을 급습해 확보한 핵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란 핵과학자 파크리자데가 2018년에도 SPND라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밀 조직의 책임자다. 파크리자데라는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크리자데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틀림없고 그런 인물이 이번에 피격을 당해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 정부는 파크리자데를 사망하게 한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작품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네타냐후 총리가 입수한 이란의 핵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

모사드와 이란 핵관련 전문가 암살

그런데 왜 이란 정부는 이번 공격을 모사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란의 핵관련 전문가

들을 제거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은 오래전부터 핵을 개발하여 핵무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노력했고 이란의 핵개발 관련 전문가들을 차례대로 제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07년 1월, 과학 분야에서 이란 최고 명예의 상을 받고 이스파한의 비밀시설에서 우라늄을 가스로 전환하는 일을 해 왔던 호세인푸르 박사는 방사성 독으로 독살당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오전 7시 50분, 이란의 양자물리학 전문가가이면서 이란 핵개발 계획의 고문이었던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 교수는 테헤란 북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구실로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폭발로 자동차와 박사의 시신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오전 7시 45분, 테헤란 이란 핵개발 계획 과학 책임자 마지드 샤리아리 박사가 자동차로 출근할 때 뒤에 달라붙은 정체불명의 오토바이가 자동차 뒷유리에 뭔가를 부착했고 잠시 후 자동차가 폭발하여 박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2011년 7월 23일 오후 4시 30분, 테헤란에서 물리학 교수이자 이란의 비밀 핵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적 인물 다리우쉬 레자이 네자드라는 인물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두 남자가 가죽 재킷 속에서 자동 권총을 꺼내 쏘고는 도망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란에서 핵개발 과학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원인 모를 폭발과 독가스 흡입, 그리고 암살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란 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곧바로 시인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런 식의 작전을 치밀하고 은밀하며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조직은 지구상에 오직 이스라엘의 모사드 외에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에서 일어난 또 다른 암살

11월 27일 이란 핵개발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 파크리자데 피살 사건 이후 그다음 날인 11월 28일에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라크와 맞닿은 시리아 국경지대 알카임이라는 곳

에 한밤중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급 장성 1명이 경호원 3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알카임이라는 곳은 이란에서도 한참 먼 곳의 이라크 지역인데 이곳에 이란의 군 장성이 나타났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사실 이들의 움직임도 아주 1급 군사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경 지대에 나타난 그 시간, 그들의 머리 위에는 정체불명의 드론이 한 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라크의 군인도 아니고 시리아의 군인도 아니고 바로 이란의 군 장성과 경호원들만 정확히 표적으로 삼고 드론에서 총을 난사해 이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네 사람만 사살했습니다. 이 공격 역시 현재까지 많은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모사드가 움직였을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하필이면 왜 지금 이렇게 방탄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이란의 핵개발 책임자라는 엄청난 직책을 가진 사람을 꼭 집어서, 그리고 멀리 이라크의 시리아 접경까지 찾아간 이란의 군 장성을 한밤중에 마치 핀셋으로 뽑아내듯 꼭 집어서 제거했던 것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번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선거에 아직은 확실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여론은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사국인 미국 못지않게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이란 핵합의(JCPOA)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이란의 아주 못된 욕망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4일 독일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동원해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했습니다. 이 협상으로 인해 이란은 걸으로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결과 경제 제재가 풀려 그동안 해외에 동결되어 있었던 1천억 달러(한화로 약 115조 원) 이상의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란은 핵물질 개발을 중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몰래 계속해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준비를 해나갔었습니다.



2015년에 공식 발표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2015년 8월 19일 A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핵사찰을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비밀 합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럼에도 당시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에 대해 유럽연합과 전 세계는 세계 평화를 위한 놀라운 진전이라며 환영했고, 이와는 다르게 강력히 반대한 것은 이스라엘뿐이었습니다. 미국과 세계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란과 미국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이스라엘과는 멀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8년 동안 버락 오바마의 옆에서 부통령으로서 이 모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던 인물이 바로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모든 행정 명령들부터 취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란과 맺었다가 트럼프가 파기했던 핵합의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조 바이든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핵합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4년 전 미국에서 치러진 선거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었지만 이번에 치러진 선거는 또다시 미국을 4년 전 민주당 시절로 되돌려 놓을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

계도 역시 4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핵개발 저지를 위한 이스라엘의 조치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이란을 향해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파기한 이란 핵합의를 조 바이든 정부가 복원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뭔가 강력한 선제 경고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핵합의를 복원하고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않겠다고 "우리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라도 얼마든지 핵개발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란의 보복과 미국의 공격을 부추기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들여다볼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도발적인 암살로 이란의 군사 보복을 부추기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든 아니면 이란이 지원하는 다른 테러 조직을 통해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 공격하게 된다면 이제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트럼프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계산일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란을 향해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번 두 명의 핵심 인물 피살 사건을 통해 트럼프에게 그 계기를 마련하려 했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11월 12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과 마크 밀러 합참의장 등 고위 보좌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날 참모진들은 군사행동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하죠. 이날 회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이 '이란 핵합의'에서 약속한 허용치의 12배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하루 뒤에 열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위한 2단계 중 1단계가 2021년 초에 완성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11월 22일 카타르에 방문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보십시오.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늘 그래왔었지만 보복 공격에 대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베니 간츠는 지난 2주간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두 차례 통화하면서 이란 및 시리아와 관련한 군사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이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도 이달 중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이란 문제를 논의했는데 폼페이오가 중동을 방문한 기간 동안,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 사령부는 “B-52 전략 폭격기가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했

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곧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중동을 위한 기도제목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듯이 세계는 그리고 중동은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789년 4월 30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23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가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미국의 지도자가 과거의 오바마처럼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외롭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얽드릴 때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두 번 다시 그들이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당하지 않고 홀로코스트 때 당했던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땅 이스라엘로 알리아 해서 우리가 진정 평안히 살 곳은 이스라엘뿐이라는 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며 ‘바룩 하바 베שמ 아도나이’를 외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Brad Store 에서 샤бат 용품을 구입하세요



- 1 키두쉬 잔 53,000원
- 2 샤бат 촛대 65,000원
- 3 할라빵 덮개 40,000원



각 10ml 23,000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안내할
어노인팅 오일

온화하고 은은한 꽃의 향기 샤론의 장미
우아하고 기품있는 향의 에스더 왕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원할 때 유다의 사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 및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쇼핑하면서 메시아닉 단체를 돕는 방법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후원으로 운영되는 메시아닉 단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메시아닉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 와중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고 한다.

지난 2013년에 출시한 '아마존 스마일'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비영리 단체를 돕기 위해 새롭게 고안해낸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서 기부도 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다. 아마존 스마일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구매 금액의 0.5%가 고객이 지정한 비영리 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활발히 전도사역을 하고 있는 메시아닉 단체 '쥬스 포 지저스'도 아마존 스마일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기존 아마존 계정을 갖고 있다면 이곳 웹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가격과 품목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 가격의 일부를 메시아닉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올해 7월, 기독교 단체 '아메리칸 패밀리 어소시에이션'은 단순히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극우 집단으로 규정되어 아마존 스마일에 등재되지 못했었다. 이에 맷 가에츠 공화당 의원이 청문회를 통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더 많은 메시아닉 단체가 혐오 단체로 프레임 씌워지는 일 없이 아마존 스마일과 같은 대형 비즈니스의 혜택을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제목

- 메시아닉 단체가 재정 문제를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메시아닉 단체가 세상이 씌우는 오명에 좌절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두인 사히드 형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라드의 사역자 요아킴과 데비 부부와 베두인 사히드 형제의 소식이다. 당시 집에 감금되었던 사히드 형제는 이제 마을 밖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 그를 핍박하던 일가친척 중 심하게 폭력적인 태도로 분노를 표했던 그의 친형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히드의 어머니는 사히드가 예슈아를 믿는 니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며, 사히드의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기독교 교리를 주의할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한다.



사히드 형제가 개종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히드 형제 가정은 지금 같은 마을의 결혼식이나 이웃 마을에 축제가 있어도 초대받지 못하는 등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히드 형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제목

- 사히드 형제를 통해 그의 가문과 마을이 모두 예슈아를 믿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요아킴과 데비 부부와 사히드가 연합하여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르티즈 가정의 근황과 기도 제목

아리엘 지역의 데이빗과 레아 오르티즈 가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한 달여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진행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11월 26일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연로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각종 식료품을 전달하는 사역부터 무슬림이었다가 예슈아를 영접한 지체들과의 교제와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 모임도 재개했다고 한다.



◆ 기도 제목

- 오르티즈 가정의 모든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스라엘 부흥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오르티즈 가정을 핍박하던 모든 자가 예슈아를 만나서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0년 메시아닉 단체의 감사 소식

2020년 연말에 메시아닉 단체에서 좋은 소식을 보내왔다. 아비브 미니스트리의 도브 비카스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텔아비브의 재활센터가 도움을 요청하는 중독자로 항상 꽉 차 있었다고 고백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표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트리 오브 라이프 미니스트리는 이스라엘에서 노방 전도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단체다. 지난번 정통 유대교를 믿는 한 자매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슈아를 알고 싶다고 고백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지금은 이 자매가 복음성가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아 예슈아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지난 10월 윈 포 이스라엘은 현대 히브리어로 재구성한 신약 성경을 모바일 앱으로 출시했는데 수천 명의 청년들이 휴대폰으로 앱을 잘 이용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비록 정통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특정 인물이 앱 리뷰에 별점 테러를 하고 악플을 남기는 등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메시아닉 지체가 많이 사용하고 좋은 평가를 남겨서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 기도 제목

- 코로나19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 온 메시아닉 사역자를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메시아닉 단체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언약의 확인?

글/ 故 어빈 백스터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의
평화협정에 붙여진 ‘아브라함 협정’은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된 언약의 확인일까?



아브라함 언약

4천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중추적인 사건은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속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서기 70년 로마인에 의해 약속된 땅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방랑은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거의 2천 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의 씨를 다시 세우셨으나,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몹시 반대했다. 1979년 이집트는 안와르 사다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최초의 아랍 국가가 되었으나, 1년 후 사다트는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무장단체에 의해 암살당했다. 그 후 1994년, 요르단은 이 유대 국가와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20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수립이나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 인정을 완강히 거부했다.

아브라함 협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출마했을 당시 대통령직의 최우선 목표는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3년간의 결연한 외교 끝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협정을 발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며칠 후, 바레인 또한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9월 15일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의 대표들이 워싱턴 DC 백악관 잔디밭에서 만났다. 거기

서 그들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했다. 그 협정의 이름이 발표되자 아브라함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동 평화 예언

아마겟돈 전쟁과 예슈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은 다니엘 9장 27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현대인의 성경)

이 예언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 언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앗이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가 서명한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 주어진 땅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지막 7년이 시작되었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다. 바레인과 UAE의 평화협정 체결은 아브라함 협정의 완성이 아니다. 예언에서 적그리스도는 “다수”와의 언약을 확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15일 협정이 체결된 뒤, 현재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아랍 국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협정의 가장 중요한 서명자는 팔레스타인일 것이다. 아브라함 협정이 완성되려면 아래 다섯 가지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이 이 다섯 개 조항이 포함된 평화협정의 일부가 되

면, 마지막 7년과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1.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팔레스타인 고국은 유대(서안 지구)에 세워져야 한다.
3. 서안 지구에 사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한복판에 살도록 허락될 것이다.
4. 성전산은 모든 종교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유될 것이다.
5.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분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어디 있는가?

팔레스타인을 평화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하는 것은 마지막 협정이 체결되고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전개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 프로세스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다.

압바스 수반은 국제사회가 주도할 최종 평화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는 특히 '중동 쿼텟(4개 중동 평화 중재 당국)'이 주도할 협상을 요구했다. 중동 쿼텟은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해 2002년에 결성되었으며, 유엔, 유럽연합(EU), 러시아,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안이 전개되면 최종 합의에서 적그리스도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우리는 아직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협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안다면 적그리스도도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니 블레어의 역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2007년 6월 27일 콰르텟의 공식 특사직을 맡았다. 2015년까지 중동 평화 노력의 초점은 항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동 지역의 다른 아랍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블레어는 특사 임기가 끝나갈 무렵 이 접근 방식의 효과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 아랍 국가들을 먼저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블레어와 만나 이 의견을 공유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블레어는 오랜 세

월 동안 강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9월 15일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토니 블레어는 초대받은 유명인사들 중 한 명이었다. 만약 쿼텟이 다시 한번 중동 협상에 관여하게 된다면 블레어 총리는 역할을 부탁받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7년을 준비하는 것

예언된 마지막 7년은 예슈아 하마쉬아흐의 사역을 제외하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 그 어떤 7년 기간보다 예언적 성취가 더 많이 담길 것이다. 마지막 7년의 전반기 동안, 이스라엘의 제3 성전이 성전산에 지어질 것이고, 성전이 완성되면 희생제가 재개될 것이다. 하지만 곧이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와 하나님을 자처하며 제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 불리는 이 일은 7년 대환난의 후반기 3년 반을 촉발할 것이다.

7년 대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실 것이다. 이 두 명의 위대한 설교자는 마지막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파할 것이다. 7년 대환난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은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이끌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은 이 시기에 위대한 유대인의 부흥을 예언한다. 요한계시록 7장 9-14절은 위대한 이방인의 부흥을 예언한다. 초기 교회 부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성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사도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사도였다. 요한계시록 7장에 따르면 또 다른 유대인-이방인 부활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니엘 11:32-33은 우리가 바로 앞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마지막 7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고 공적을 행할 것이며 백성들 사이에서 이해하는 자가 많은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계속 말한다.

아브라함 협정은 완성될 것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예언된 합의에 도달할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7년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부흥에 참여할 준비를 하자.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브래드TV '지금은 마지막 때' 2020년 9월 9일, 23일 방송분에서 확인하세요.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 브래드TV만의 하누키아를 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 기간에 가정집의 창문이나 현관문 앞 그리고 통곡의 벽에도 하누키아를 설치해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밝힙니다. 가운데 촛불을 먼저 밝히고 오른쪽부터 하루에 하나씩 불을 밝히는 거죠.

브래드TV에서도 유대력 5781년 하누카를 맞이하여 하누키아를 직접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높이 1.5 미터의 나무로 만든 하누키아의 가운데에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야'라는 뜻의 히브리어도 새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781 하누카 8일 연속 예배의 첫째 날, 하누키아가 브래드TV 사옥에 도착해 하누카 첫째 날 예배에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짠 올리브유를 넣어 하루에 하나씩 불을 붙였습니다.



브래드TV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누키아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문이 어려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다시금 맑은 공기를 마스크 없이 마실 수 있을 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빛이신 예수야 안에서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5781 하누카 8일 연속 예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20년 12월 하누카 기간에 맞춰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5781 하누카 8일 연속 예배는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IMN)와 브래드TV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메신저들을 모시고 빛이신 예수야를 찬양했습니다.

비록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300명이 넘는 분들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배 장소로는 금요 샷밭 예배를 드리는 브래드TV 사옥 1층 코텔홀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예배의 불을 밝혔습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원뉴맨션터, 순복음강남교회, 과천 뽀얏교회, 리바이브이스라엘과 메신저로 섬겨 주신 박재남 목사, 정관창 목사, 임도현 목사, 조대경 목사, 박홍수 목사, 엄민용 목사, 변순복 교수, 김영대 목사, 이정 목사, 김충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브랜드 브리핑 원고를 신앙계에 연재합니다

김종철 감독이 직접 원고를 쓰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브랜드 브리핑의 원고가 2021년 2월부터 월간지 신앙계에 매월 게재됩니다.

브랜드 브리핑은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슈를 비롯해 문화 현상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브랜드TV의 시청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앙계는 창간된 지 53년이 넘는 명실공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앙 잡지로 꾸준히 국내 독자뿐만 아니라 해외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앙계 월간지에 김종철 감독님이 브랜드 브리핑 촬영을 위해 작성한 원고를 정리하여 매월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계와 협력하여 브랜드 브리핑 원고를 신앙계에 실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신앙계의 독자들이 글을 읽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뉴욕 브루클린의 선교사로부터 온 기쁜 소식

브랜드쇼 310, 311회에 출연했던 조슈아 강 선교사님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기도의 집을 섬기는 알리아 코디네이터입니다. 얼마 전 조슈아 강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래는 선교사님이 보낸 글입니다.



샬롬! 감독님,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며칠 전 브루클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샤밭 아침, 쌀이 다 떨어져 ‘아 오늘 무얼 먹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음식을 집 앞에 두고 가신 걸 발견했습니다!

브랜드TV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여 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브루클린 기도의 집 인터뷰를 보며 음식을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곳에 미국, 사모아 스태프들이 함께 있는데 다들 환호하고 기뻐하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브랜드TV를 보시고 미국에 계신 분이 미국의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ISRAEL NEWS 이스라엘에서 온 뉴스

글/ KRM News 정리/ 신승의

2020년 12월 첫째 주 <11월 27일 ~ 12월 2일>



이스라엘-바레인 관광업 MOU 체결

서안 지구 제조 물품에 ‘이스라엘산’ 라벨 부착 발표

외교 정상화를 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바레인 관광과 산업 자원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며, 서안 지구에서 제작되는 상품에 대해 “이스라엘산”이라는 라벨을 붙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방문 중 서안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은 행보다.



테헤란 남쪽 아라크에 있는 원자로

이란 핵무기 개발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통과

이란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제는 유엔의 핵 사찰 거부를 합법화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핵협상을 원하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의 정세가 계속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이란과의 대리전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20년 12월 둘째 주 <12월 3일 ~ 10일>

하누카 절기 동안의 통행금지 취소 돼

2차 봉쇄 이후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어 가던 중 하누카 첫째 날을 시작하는 목요일 오전, 또다시 코로나 신규 일일 확진자가 1,800명을 넘으면서 하누카 기간과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저녁 시간에 통행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 법적 승인을 얻지 못해 취소되었다. 그 대신 직계 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정의 방문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5781 하누카 첫날, 통곡의 벽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촛불을 밝혔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도착, 항체 보유 50% 목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관계와 경제를 더 중요시하면서, 아랍에미리트를 코로나 확진 적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 FDA의 승인도 받기 전이고, mRNA 타입의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통해 전 국민의 5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한편 화이자 코로나 백신 4천여 개가 현지 시각 9일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12월 27일부터 하루 6만 명까지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에델스타인 보건부 장관, 화이자 백신 TEVA 저장 장소 시찰

이스라엘 극빈층 급증, 중동 관계 긴장과 보복 우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스라엘 극빈층이 20.1%에서 29.3%로 급증하면서 85만 가구가 주택, 교육, 건강 관리,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로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를 고려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란의 핵과학자 암살 이후 아랍 중동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보복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언제나 사회적, 종교적, 국제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2020년 12월 셋째 주 <12월 10일 ~ 17일>

이스라엘, 하누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늘어

이스라엘이 코로나와 관련해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누카 절기 기간 동안만 7만여 명이 아랍 에미리트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이중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이틀 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이어 2,800명을 넘으면서 또다시 코로나 규제 강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결정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정부 내각의 반대와 규제 제재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도착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온 화이자 백신에 대해 접종을 꺼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우려를 의식해 네타냐후 총리는 토요일, 리블린 대통령은 일요일에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을 약속했고, 23일부터 하루 6만 명씩 접종을 시작해 1월 말까지 2백만 명의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식 백신 접종 차량에서 백신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



백신이 들어있는 특수 냉장고

이 글은 매주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의 소식을 현장에서 빠르게 취재하여 알려주는 KRM 뉴스레터를 허락 받고 게재하는 것입니다.



영화 <더 코레이저스 하트 오브 이레나 센들러>의 한 장면

하나님 편에 선 의로운 이방인

글/ 샤니 퍼거슨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

성경을 볼 때 “이방인”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 굉장히 매력이 없게 느껴진다. 수많은 구절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마 6:7)” 혹은 “이방인과 같이 서로를 대하지 말라(마 5:47)”는 말씀으로 경고한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배치된 이방인들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 속 인물들에게 생사를 결정짓는 역할을 해왔다.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방인의 찰나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과 같이 되었으리라고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고대에 이 불후의 영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임(Goyim,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대에 우리는 이들을 “의로운 이방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많은 나치와 여타 극악한 원수들로부터 많은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다. 2차 대전이 비극적인 측면과 교회의 침묵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많은 이방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했다.

이러한 영웅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을 밀실에 숨겨주고 음식과 생필품들을 넣어준 경우도 있었다. 또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별 기술 직종”에 유대인들을 고용하기도 했으며, 또 직접 계토로 숨어 들어가 가능한 많은 인원의 유대인들을 구출한 일도 있었다. 이 이방인들이 자신과 다른 인종의 낯선 이들을 살리고자 생명의 안전과 안정을 포기한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찢어지는 듯한 이야기들이다.

어떤 이야기들은 <신들러 리스트>나 <피난처>와 같이 불멸의 영화가 되기도 했다. 이레나 센들러를 포함한 또 다른 이야기들은 영웅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해 유명해졌다.



영화 <선들러 리스트>의 한 장면

2007년, 이레나는 강력한 독일 제3제국의 “최종 해결책”으로부터 수천 명의 유대인을 구한 용기 있는 업적에 경의를 표하여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은 날씨에 대한 영화를 만든 엘 고어에게 돌아갔고, 이레나는 이듬해에 98세의 나이로 긴 생을 마감했다. 결국 노벨 평화상을 놓치게 된 것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가 배우는 역사 가운데 마땅히 차지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레나 센들러

이레나 센들러는 폴란드의 기독교인으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마쳤다. 독일이 1939년에 폴란드를 점령하자, 그녀는 지하 운동에 가담했고 심지어 나치로부터 유대인 어린이들을 구하는 일을 돕기 위해 많은 친구들을 모집하기까지 했다. 사회복지사는 게토에 출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레나는 문서를 위조하여 간호사 신분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출입 권한이 생기자 이레나는 옷가지,

음식, 약품을 어린이들에게 몰래 전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이레나는 아이들을 수용소에서 몰래 빼내야만 함을 확신했다.

이레나는 아이들을 가방에 담고, 심지어 자신의 차에 실은 관에도 넣어 숨겼다. 아기들은 자신의 공구 상자 바닥에도 끼워 넣었다. 이레나는 아이들이 울지 못하도록 자주 달래고, 나치 경비병이 차를 수색하기 위해 오면 공격스럽게 짓도록 훈련한 개를 두기도 했다.

그녀의 지하 조직망은 또 비밀 지하 통로를 통해 아이들을 빼내기도 했다. 종종 탈출은 두 번째 계획까지 마련해 두었다. 이레나가 탈출을 도와준 남자아이 한 명은 자신이 어느 밤에 대문 옆에서 숨어있었던 이야기를 회고했다. 나치 경비병이 지나갈 때 30까지 세고서 아이는 길 한가운데의 맨홀을 향해 달렸다. 맨홀은 아이가 손을 대자마자 열렸고, 하수구 아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손으로 아이가 내려가는 것을 도왔다. 아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이레나는 구출된 아이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새로운 신분을 위우게 하고, 수도원이나 입양 가정으로 보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진짜 신분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담은 병을 친구네 집 마당의 나무 아래 묻어두었다. 이레나는 전쟁이 끝나면 이 아이들이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기를 바랐고, 최소한 그들을 찾아서 진짜 유대인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이들의 가족 대부분은 수

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이레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2,500명 이상의 아이와 500명의 어른을 구출했다.

결국 이레나는 나치의 비밀 국가 경찰 계슈타포에게 붙잡혔다. 나치는 그녀에게서 지하 운동과 구조한 아이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무자비하게 덤볐다. 다리와 발을 부러뜨리는 등 많은 고문 후에 나치는 그녀가 입을 열지 않을 줄 알고 사형을 선고했다.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직전에 한 계슈타포 관리가 이레나의 감방에 가서 그녀의 동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레나에게 사형된 것으로 기록을 했으니 나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레나는 감방에서 나왔고 위장이 발각되자 숨어 지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이 일을 계속 이어갔다.



이레나 센들러는 간호사이자 사회복지사로 약 2,500명의 유대인을 바르샤바 게토에서 탈출시켰다

이레나가 이 큰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는 손아귀에서 벗어나 안전할 수 있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의 생존을 위해 싸운 이방인은 이레나가 처음이 아니었다.



센들러가 구출한 아이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입양 가정이나 수녀원에 보내졌다
몇몇 아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부모와 재회했다

선택받은 민족을 돕기 위해 선택 받은 이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조와 보호의 손길을 건넨 이방인들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때로는 담대하게 이 역할을 수행한 것 같고, 또 때로는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꽤 자주 이들이 베푼 친절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삶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딸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사명을 달성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공주는 궁전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죽이라 명했던 히브리 남자아이들 중 한 명인 모세를 구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도, 의도는 선했지만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 밖으로 쫓겨난다. 미디안의 다정하고 온화한 이방인 아프리카 가정의 품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중요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다른 계획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우상들을 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호와와의 민족의 편에 설 일생일대의 기회를 이 여인이 갖게 된 것이다. 정탐꾼들을 숨겨 성 밖으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준 그녀의 빠른 판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녀는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부지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영웅의 삶으로 기억되었다. 수 세기가 흐른 뒤에도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불멸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었으며, 예슈아의 계보에도 언급되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주님께

서 보호하신 거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니까.”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의로운 이방인들이 그 공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편에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된 이들의 배후 이야기를 읽어보면,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도운 것이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테오도르 헤르츨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아버지라 불린다

나도 의로운 이방인이 될 수 있을까?

유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인의 듣는 귀가 요구되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다. 때로는 왜인지 모르지만 에스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원과 왕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준 헤게 같은 종이 있다(에스터 2장). 때

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처럼 능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유수를 끝내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역대하 36장).

때로는 하나님의 어젠다가 이뤄지는 데에 한 명 혹은 하나의 단체 이상이 필요하다. 약 100년 전, 대영제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할 것을 공포했다. 이 조치는 주변 아랍 부족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반발을 가져왔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 비전은 아무런 실행 없이 책상 위에 갇혀 있었다. 또 다른 능력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아 유대 국가의 독립을 인정하는 UN 투표를 밀어붙였다.

가장 낮은 중부터 나라의 가장 높은 통치자까지, 전 세계의 이방인들은 유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뤄지는 데에 각자의 몫을 담당해왔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도에 대한 본보기요 예시로서 유대 민족을 택하셨다. 당신의 약속과 축복이 당신을 따르는 민족 전체에 역사할 수 있음을 증거하심으로 열방을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형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대리자로 선택받았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은 풍요로운 고토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을 소유한

것이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추방되었을 때, 수 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살다 죽어야 했다. 자기 땅에서 멀리 떨어져 이교도들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을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던 이 기간 동안 의로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참 유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땅 구석구석 전하였다.

그다음으로 이스라엘이 2천 년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고토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윌리엄 헤츨러라는 인물이 있었다. 윌리엄 헤츨러는 테오도르 헤르츨이 현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브래드 리포트 5~6월 호에서 읽을 수 있다.)



윌리엄 헤츨러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계획에 있어 이방인들이 역할을 해줄 거라 믿고 계셨다.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지금도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님을 빛나게 할 거라 믿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유대 민족을 사용해서 주님의 위대함을 보이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가고 있다. 결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를 완성시켜 준다. 그러므로 오래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유산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리 시대에 열방 가운데 찬송이 되도록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출처 : 마오즈 이스라엘

www.maozisrael.org

사진 : Wikipedia, Alamy

2021년과 유대력 5781년이 있는
여호와의 절기와 유대력 캘린더

9천 원 (배송비 별도)

브래드 스토어 bradstore.com
 031-926-2722



11월 이스라엘 & 중동리포트 주요 소식

정리/ 이다운

2020.11.27 금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테러 공격으로 사망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헤란 근처 도로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27일 파크리자데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낮추자 근처에 세워져 있던 빈 닛산 트럭에서 원격 조종 기관총이 파크리자데의 차량을 저격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이 재구성한 테러의 개요다. 이란은 사건 이후부터 이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의 공작 기관인 모사드를 지목했다. 한편 이 사건이 있는 지 하루 뒤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장성이 시리아-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이란 정부는 시리아로 무기를 밀반입하려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의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은 연이은 암살에 대응해 12월 2일, 우라늄 농축을 즉시 20%로 증가시켜 2015년 핵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제정했다. 또 2월 초까지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추방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 기도 제목 ◆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이란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 제거되었는데,
그 과학자를 대체할 인력이 채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일이 멈춰지도록
기도합니다

2020.12.2 수

**연합 정부 해산안 1차 통과…
리쿠드당 내 네타냐후 라이벌,
리쿠드 탈당해 신당 창당**

12월 2일 열린 크네셋 회의에서 연합 정부 해산 법안이 찬성 61표, 반대 54표를 받아 1차 통과됐다.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과 그가 속한 청백당이 연합 정부에서 이탈해 해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4차 선거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간츠는 이미 12월 1일 밤, 네타냐후가 예산안 추진을 거부해 경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위원회를 거쳐 세 번의 투표를 더 통과해야 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020년 예산이 12월 23일에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한편 12월 8일 리쿠드당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최대 라이벌로 여겨졌던 기드온 사아르가 리쿠드를 탈당해 독자적인 정당을 창설했다. 이 정당은 ‘새희망당’으로 명명됐으며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드온 사아르의 신당은 새 정부에서 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돼 크네셋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 기도 제목 ◆

이스라엘 정부에 흐르는 반네타냐후 정서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세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20.12.3 목

**에티오피아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팔라시 무라 316명 이스라엘 도착**

에티오피아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인 팔라시 무라 소속 316명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땅을 밟았다. 이들의 입국을 위해 프니나 타마노샤타 알리아 및 통합부 장관이 직접 에티오피아로 향해 이들의 항공 수송을 주도했다. 이번 입국은 내년 1월까지 2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알리아시키는 ‘주르 작전’의 일환이다. 아직도 에티오피아에는 알리아를 기다리는 1만 4천여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있지만 이번에 귀환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친인척이 있어 이산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종교가 기독교인 팔라시 무라 공동체는 이스라엘 귀환법에 해당하지 않아, 최대 2년의 유대교 개종 교육을 이수한 뒤에야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으로 1984년 모세 작전으로 알리아한 프니나 타마노샤타 알리아 및 통합부 장관은 “알리아 장관으로서 스스로 정한 국가적 목표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유대인의 알리아를 끝마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



◆ 기도 제목 ◆

코로나와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남은 자들도 속히 알리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번에 입국한 팔라시 무라 공동체가
유대교 개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2020.12.9 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이스라엘 도착, 네타냐후 백신 접종한 첫 이스라엘 국민 돼

12월 9일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1차 분이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팬데믹의 종식이 보인다”라며 “모든 이스라엘 국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내가 백신을 제일 먼저 맞겠다”라고 전했다. 그의 약속대로 네타냐후 총리는 12월 19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 네타냐후는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말을 인용해 “한 인간에게는 작은 주사 한 방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한 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20일부터 10개 병원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하루 6만 명을 접종해 1월 말까지 2백만 명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그린 패스’를 발급해 이동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 기도 제목 ◆

접종 후 발급되는 ‘그린 패스’가 마지막 때 이동과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표’를 생각나게 한다
 통치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스라엘에 코로나 3차 확산세가 꺾이도록 기도합시다

2020.12.9 수

동성 부부 입양 허용하는 법안 법안 초안 승인, 입법 위한 여정 시작

12월 9일 아비 니센코른 법무부 장관과 잇지크 슈몰리 복지부 장관이 동성 커플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1960년 이후 입양법에서 ‘남녀가 함께 입양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동성 커플과 한부모 가정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입양의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자녀가 적합한 부모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동성 커플은 이스라엘 법에 따라 입양 승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난 10년간 입양에 성공한 동성 커플은 극소수이며, 다른 대안으로 해외 입양을 선택한 동성 커플이 대다수이다. 동성애자인 잇지크 슈몰리 장관은 이번 법안을 두고 ‘심각한 차별의 역사적인 시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입법부 장관 위원회에 상정돼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여정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을 반대하는 종교 정당들이 정부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어 입법의 난항이 예상된다.



◆ 기도 제목 ◆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입양 자녀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텔아비브는 이미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를 벌이는 도시가 되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동성애에 대해 관대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백신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가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합시다

2020.12.10 목

**이스라엘-모로코 외교 정상화 합의,
아시아 국가인 부탄도 이스라엘과 외교 수립**

북아프리카의 아랍 국가인 모로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4개월 만에 네 번째로 체결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정이다. 12월 11일 하누카 기념식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평화 협정에 대해, “하누카를 맞아 평화의 빛이 중동에서 오늘보다 더 밝게 비쳐진 날이 없을 것”이라며 모로코와의 평화 협정을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분쟁 지역이었던 서부 사하라 지역에 대해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로코가 1777년 미국을 인정했듯이 우리도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12월 12일에는 아시아 국가인 부탄도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부탄과의 관계 수립으로 이스라엘과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전했다.



◆ 기도 제목 ◆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가
 상대국에게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얻고
 정치적 분쟁 지역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이 기회를 통해 상대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평화협정으로 증가된 교류를 통해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시작되도록 기도합시다

2020.12.14 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제다 인근 해상서
유조선 공격당해 폭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도시인 제다 인근 해상에서 한 유조선이 폭발물이 실린 보트의 공격을 받아 폭발했다. 폭발한 선박은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와 계약을 체결한 싱가포르의 BW라인 소유의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배는 무연 가솔린 6만 톤을 싣고 제다 항에 정박 중이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선체가 손상됐지만 선원 22명 전원은 부상 없이 배를 탈출했다. 사우디 통신은 “폭탄을 실은 원격 조종 선박이 폭발을 일으켰으며, 이는 예멘 후티 반군이 쓰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23일 사우디 제다의 아람코 석유 시설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이 발생한 사건이 있던 지 3주 뒤 발생했다. 사우디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이번 테러에 대해 이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015년 예멘 내전이 발발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은 이란 정부의 지원을, 예멘 정부는 사우디 정부를 주축으로 한 아랍 동맹국의 지원을 받고 있어 사우디와 이란은 서로 상대방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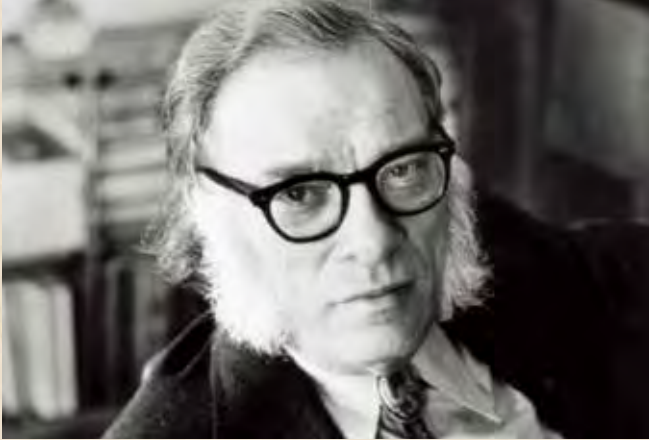
◆ 기도 제목 ◆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이 중동에서의 세력 확장을 위해
 주변국의 전쟁을 지원하고 악한 행동에 앞장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란을 다스리시도록,
 또 이란에 확장되고 있는 복음의 물결을 통해
 이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합시다

유대 역사 속의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일 미국계 유대인 작가 제롬 데이비드 샬린저 출생 (1919)	2일 생화학자이자 작가인 유대계 미국인 아이작 아시모프 출생 (1920)
3일 가자로 향하던 불법 무장 선박 "카린 A" IDF에 포획 (2002)	4일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고통받다 (2006)	5일 나치, 카르코브 게토에서 유대인 15,000명 학살 (1941)	6일 미국 장군 율리시스 그랜트 반유대주의 명령 철회 (1863)	7일 유대인 가수 데비 프리드먼 카네기 홀 데뷔 (1996)	8일 유대계 하원 의원 가브리엘 기포즈, 애리조나에서 총격 부상 (2011)	9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의 대통령으로 선출 (2005)
10일 유대인 가족에 대한 TV쇼 "골드버그 패밀리" 최초 방영 (1949)	11일 미국의 후버 대통령 유대 국가 지지 선언 (1932)	12일 이스라엘과 요르단, 무역조항 개정 (2000)	13일 바덴 대공국, 유대 국가 인정 (1809)	14일 유대인 여성 인권 운동가 한나 솔로몬 출생 (1858)	15일 IDF, 아이티 지진 구호 작전 개시 (2010)	16일 일란 라몬이 탐승한 컬럼비아 우주 왕복선 발사 (2003)
17일 유대인 패션 아이콘 비달 사순 출생 (1928)	18일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전쟁, 이스라엘이 휴전 선언 (2009)	19일 소련군, 폴란드의 우치 게토 해방 (1945)	20일 나치, 반제 회담에서 '최종 해결책' 논의 (1942)	21일 이스라엘 벨킨드, 빌루 시오니스트 단체 창립 (1882)	22일 IDF, 뮌헨 올림픽 학살을 계획한 알리 하산 살라메 처치 (1979)	23일 세계 시오니스트 의회 공동 창립자 맥스 노르다우 사망 (1923)
24일 미국계 유대인 가수 닐 다이아몬드 출생 (1941)	25일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아랍의 봄 시위 시작 (2011)	26일 브라질, 모든 유대인 추방할 것을 포고 (1654)	27일 연합군,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1945)	28일 유대인 우주비행사 주디스 레스닉, 우주왕복선 폭발로 사망 (1986)	29일 19번 버스 자살 폭탄 테러로 11명 사망, 50명 이상 부상 (2004)	30일 히틀러, 독일 총리로 임명 (1933)
31일 미국,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 (1949)						

생화학자이자 작가인 유대계 미국인 아이작 아시모프



아이작 아시모프 박사는 미국의 생화학자이며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작가이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1920년 1월 2일 러시아 페트로비치에서 아버지 유다 아시모프와 어머니 안나라힐 베르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 3살 때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는 유대 전통을 지켰으나 이러한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고 아이작 아시모프는 종교적 영향을 받지 않은 인본주의자이자 이성주의자로 성장했다. 11살 때부터 아시모프는 스스로 과학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그중 많은 것을 잡지사에 팔았다.

아시모프는 1939년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했고, 1949년에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보스턴 대학교 학부에 취직하여 생화학 교수로 일하게 되었으나, 소설 집필에 전념하기 위해 사직했다. 이에 1979년, 보스턴 대학은 그의 명성과 업적을 높이 평가해 그를 정규직 교수로 임명했다.

아시모프는 그가 집필한 과학 소설로 유명해졌다. 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파운데이션》 시리즈이며 그 외에 《은하 제국》 시리즈와 《로봇》 시리즈가 유명하다. 아시모프의 소설은 주로 부자 관계, 이성주의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

그는 18살에 첫 번째 책 《진공 표류(Marooned Off Vesta)》를 출간했고, 1941년에는 그가 쓴 과학 소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평가되는 단편 소설 《전설의 밤》을 출간했다. 1950년에는 《우주의 조약돌》이라는 첫 장편 소설을 썼다. 1942년에 아시모프는 로마제국의 흥망을 읽고 자극을 받아 미래 역사소설 파운데이션 3부작을 쓰기 시작했다. 파운데이션 3부작은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과 제국》 그리고 《제2 파운데이션》이다. 그는 또 로봇 시리즈의 첫 번째 단편 소설 《아이 로봇》도 이 시기에 발표했다. 이 소설은 후에 영화 '아이, 로봇'으로 제작되었다.

아시모프는 1957년 《벌거벗은 태양》이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잠시 소설 집필 활동을 접었다. 1952년에는 《생화학과의 인간의 신진대사》와 같은 대학 교재를 썼다. 드디어 1982년에 《파운데이션의 가장자리》라는 책을 쓰면서 그의 두 번째 과학 소설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는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이어나가며 《파운데이션의 끝》, 《파운데이션과 지구》 그리고 3부작의 이전 이야기인 《파운데이션의 서막》과 《파운데이션을 향하여》를 집필했다. 그때부터 죽기까지, 아시모프는 이전에 썼던 소설의 시퀀과 프리퀀을 썼다.

아시모프는 과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역사에 큰 흥미를 보였다. 그는 1960년부터 14권의 역사책을 저술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리스: 놀라운 모험》, 《로마 공화국》, 《로마 제국》이다. 그는 또한 《아시모프의 성경 안내서》라는 1967년에 구약, 1969년에 신약에 관한 2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1986년, 아시모프는 과학 소설과 판타지 소설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작가 과학 소설 그랜드 마스터상을 수여 받았다. 《The Mule》, 《신들 자신》, 《파운데이션의 끝》, 《바이센티니얼 맨》, 《골드》 그리고 《나, 아시모프: 회고록》으로 총 여섯 개의 휴고상을 수상했고 《신들 자신》과 《바이센티니얼 맨》으로 네블러상을 받았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아시모프는 미국 인본주의협회의 협회장을 맡았고, 1992년 4월 6일 뉴욕에서 에이즈로 사망했다.

지난 12월 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브래드TV 12월 프로그램 리스트 (12/2 - 12/23)

브래드쇼

12/2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키는 '한 가지'

/ 이경욱 선교사 (2)



12/9

예수님은 40일을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 변순복 교수

12/16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영국의 코로나 사태

/ 박계원 선교사



12/23

유대인 신약성경이
개역개정과 다른 점

/ 권레아 목사, 양혜경 사모

이스라엘 & 중동리포트

12/2

- 네타냐후, 사우디 왕세자와 사우디 네옴서 극비 회담
- 뉴욕 초정통 유대인, 코로나19 규제 어긴 결혼식 올려 논란행
- 이란, 하루 만 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비상'해
- 이란 핵 과학자 테헤란 근방서 피살돼



12/9

- 이란, 핵 과학자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 지목
- 이란 고위 장성, 시리아 국경서 무기 이송 중 드론 공격으로 사망
- 이란, 우라늄 농축 강화 및 핵 사찰 중단 법안 제정란
- 연합 정부 해산안 1차 통과, 결국 4차 선거 향하는 발판 마련

12/16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차분, 텔아비브 도착
- 이스라엘 입국 팔레스타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무작위 실시
- 동성 커플 입양 허용하는 법안 초안 승인
- 에티오피아 유대인 316명, 마침내 고토로 돌아왔다



12/23

- 예산안 승인 시한 만료... 연합 정부 자동 해산 및 4차 선거 소집
- 아시아 국가 부탄,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
- 사우디 제다 인근 해상서 유조선 공격받아 폭발, 배후는 예멘 후티 반군
- 20일부터 이스라엘 백신 접종 시작, 사우디는 18일부터

브래드 브리핑



12/9

미국 대선 이후
드디어 모사드가 움직였다



12/23

예멘 반군의 최종 목표,
이스라엘에 죽음을

지금은 마지막 때



- 12/2 유엔의 목표, '사회주의로의 회귀' (1)
 12/16 유엔의 목표, '사회주의로의 회귀' (2)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12/2 - 쇼핑하면서 메시아닉 단체를 돕는 방법
 - 오르티즈 가정의 근황과 기도 제목
 - 베두인 사히드 형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 12/16 - 예수아와 하누카의 떨 수 없는 관계
 - 하누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
 - 감사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메시아닉 단체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 12/2
- 미 국무장관 골란고원과 서안지구 정착촌 최초 방문담
 - 터키의 중동 팽창 정책
 - 중동 지역에 피어나는 새로운 민주주의
 - 예루살렘 상징, 다윗탑 박물관 재단장



- 12/9
- CBN 새 다큐멘터리 '나사렛 예수'
 -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 막달라에서 발견된 1세기 경 회당, 예수님의 발자취를 엿보다
 - 2천 년 전의 나사렛 모습

- 12/16
- 2년 새 4번째 총선이 예상되는 이스라엘 내각
 - 이스라엘 혁신기업과 기독교 투자가 서밋 '어라이즈'
 -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공기 청정기 개발한 이스라엘 스타트업
 - 성경의 땅에서 읽는 누가복음



- 12/23
-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4번째 아랍 국가 모로코
 -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내 기독교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 빛과 기적의 축제 하누카
 - 성지에서 읽는 성경 읽기, 마리아 수태고지

금요 샷밭 예배



- 12/4 **벤엘로 올라가라!** / 이정 목사
 12/11 [5781 하누카 8일 연속 예배 첫째 날] **헌신** / 박재남 목사
 12/18 [5781 하누카 8일 연속 예배 마지막 날] **하누카와 마지막 때** / 김충렬 목사

이정 목사의 토라포선



- 12/2 8번째 주 "바이실라흐"
 12/9 9번째 주 "바예셰브"
 12/16 10번째 주 "미케쯔"
 12/23 11번째 주 "바이가쉬"

이학재 교수의 노래로 배우는 히브리어



- 12/2 3강 - 히브리어로 누리는 아론의 축복
 12/16 4강 - 한 번에 익히는 시편의 찬양

이정 목사의
토라포션

크리스천을 위한
1년 54주 토라 성경 공부
이정 목사의 안내로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영상은 매주 수요일마다 업로드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정 목사의 토라포션** 을 검색해보세요